



장기요양기관 '태풍 힌남노' 대비 안내문

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현재 초강력 태풍 '힌남노'가 빠르게 북상하며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

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상특보 등을 통해 태풍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고, 특히 산사태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 비상용품(응급약, 물, 랜턴 등)을 준비하고, 비상연락망을 점검·확인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제공한 「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」과 붙임의 '태풍대비 안전수칙'을 적극 활용하시어 태풍대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

* 재난 발생 전 미리 알아두세요 *

비긴급상황시 일반민원	일반구조와 같은 긴급상황	정전발생 시 전기관련	가스누출 등 가스관련
정부민원안내콜센터	119안전신고센터	한국전력공사	한국가스안전공사
110	119	123	1544-4500

2022. 9. 5.

국민건강보험공단 (직인생략)

1. 태풍 주의보

- TV나 인터넷을 수시로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합니다.
- 사무실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.
-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.
- 응급 약품, 손전등, 식수,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합니다.
-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, 간판, 창문,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현 가구, 놀이기구,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합니다.
-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.
-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.
-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,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.
- 전신주, 가로등,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.
-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 합니다.
-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.



주택 하수구와
집주변 배수구 점검



TV나 라디오로
기상 상황 틈틈이 확인



응급약품, 손전등, 식수,
비상식량, 라디오 등
비상용품 미리 준비



지역의 대피 장소와
대피요령 미리 숙지

2. 태풍경보 시

- 건물의 간판 및 위험시설을 주변으로 걷어가거나 접근하지 맙시다.
-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, 안전을 위해 실내에 있도록 합니다.
-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.
-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떨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,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.
-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.
-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사무실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.
-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.
-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.
- 고층건물 옥상,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맙시다.
-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 합니다.

《산사태 징후가 있는 때는》

태풍 발생 시에는 어느 때 보다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. 따라서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산사태 발생 징후가 보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

-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
 - ▶ 이때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진다.
-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
 - ▶ 이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.
-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,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
 - ▶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